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책들,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분류,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적지 않다. 사용자들은 고전적인 텍스트를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무료 서비스며, 온라인 사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포털사이트를 전담하며 운영하는 곳도 있다.

문학부터 SF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공해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을 비롯해 2천종 이상의 책을 온라인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비블리오마니아(www.bibliomania.com)를 들 수 있다. 이곳은 특히 학습가이드(Study Guide) 코너를 통해 영미 문학, 심리학,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고전적인 저작의 요약, 비평, 토론자료 등도 제공한다. 이런 자료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들이 작성하는데, 고교생, 대학생, 교사, 독서 클럽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 가이드 자료 역시 무료 제공된다. 텍스트 자체와 텍스트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자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셈이다.

한편 미스터리물을 중심으로 역사, 철학, 사회과학, 종교, SF 등 다양한 분야의 퍼블릭 도메인 텍스트를 제공하는 곳으로 블랙 마스크(www.blackmask.com)가 있다. 블랙 마스크에서는 약 7천종에 달하는 온라인 텍스트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곳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리더(MS-Reader), 아크로바트(Acrobat), 로켓이북(Rocket eBook), 모바일포켓 리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밖에도 사용자가 서평을 올리고 토론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 기능까지 설정하고 있다.

클래식노벨스(www.classic-novels.com)는 이메일을 통해 고전적인 문학 작품 온라인 텍스트를 '배달' 해주는 곳이다. "매일 5분 안에 세계 최고의 고전 소설을"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이곳은, 하루에 1,500~1,800 단어 분량으로 나눠 이메일을 통해 작품을 제공한다. 그밖에도 원문을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고전 중심의 무료콘텐츠 제공하는 미국 웹사이트들

전자책의 새로운 시장성 실험해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세팅(setting) 기능을 통해 글자 크기, 글꼴, 배경 화면 등을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다. 현재 전세계 70개국 4천여명의 독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최근에는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신작 소설 서비스도 시작했다.

명작 소설의 요약본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노벨가이드(www.novelguide.com)가 잘 알려져 있다. 메뉴는 줄거리 요약, 등장인물 소개, 은유·주제 분석, 유명한 구절 소개, 저자 약력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줄거리 요약의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플롯이나 장별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미국 미시간에 위치한 IGD(Internet Global Data) 솔루션사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수익은 배너 광고와 아마존닷컴의 도서 판매 제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및 중고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포털사이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전자책 콘텐츠와 '나눔의 철학' 보여줘

위에서 언급한 곳들은 대부분 단순히 텍스트만 올려놓는데 그치지 않는다. 텍스트와 상관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요약과 분석을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해놓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 텍스트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무척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이트들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

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전자책 사업

과 관련해 신간의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구간 절판본을 되살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잠재적인 전자책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오프라인 텍스트의 디지털화가 단순히 텍스트 자체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해당 텍스트에 대한 해제와 요약 자료,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좀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프라인 도서와의 차별성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찾는다면 전자책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료 온라인 텍스트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 차원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윤리'의 차원까지 함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S. 하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철학은 정보, 책, 그밖의 다양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읽고, 활용하고, 인용하고,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인터넷에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로고.